출근길에 복권을 구매했다가 우연히 20억원에 당첨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./사진=동행복권출근길에 복권을 구매했다가 20억원을 거머쥐게 된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. 지난 17일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복권에는 제53회 스피또 2000 1등 당첨자 인터뷰가 올라왔다. 당첨자 A씨는 출근길 중 그날따라 복권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내렸던 버스 정류장보다 한 정거장 빨리 내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복권과 스피또2000을 구매했다고 한다.직장으로 출근한 A씨는 스피또 복권을 확인했고 이내 10억원에 당첨됐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. 진짜인지 확인하던 그는 '세트 구매 시 1등 2매 동시 당첨'이라는 문구를 봤고 같이 붙어있던 복권을 긁어 총 20억원이 당첨됐다는 걸 알게 됐다고.A씨는 "너무 기뻤고 하늘에 있는 남편이 생각났다"며 "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함께 기뻐했다"고 당첨 소감을 전했다. 그는 당첨금 절반은 대출금 상환에, 나머지는 자녀들과 나눌 계획이라고 했다.